

# “김남일 너마저...”

### 탈장 수술 예정...아시안컵 출전 힘들듯

### 베어백 감독 미드필드 '새틀짜기' 고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레딩)에 이어 김남일(수원)까지. 핀 베어백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베어백 감독(사진)은 19일 아시안컵축구 최종 엔트리에서 미드필더진의 핵심이자 팀의 주장인 김남일이 서해부 통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비보’를 접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기쁘지만 큰 부담”

### 김주성 NBA 테스트 참가차 출국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후회 없이 하겠다.”

국내 프로농구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프로농구(NBA) 구단으로부터 입단 테스트를 제안받은 김주성(28·원주 동부)이 21일~2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비공개로 실시할 자체 자유계약선수(FA)캠프 참가를 앞두고 선전을 다짐했다.

19일 밤 9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김주성은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자신도 매우 놀랐고 기쁘다”면서 “어린 농구 선수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가서 후회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태릉선수촌에서 머물다 NBA 토론토 랩터스로부터 캠프 참가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 접했다는 그는 “일단 기쁘고 부담도 되면서 걱정도 들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어 대표팀 감독님이나 동료와 이를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주성은 또 NBA 진출에 대한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에 대해 “이제 선수로서 적은 나이가 아니다. 꼭 (NBA에) 가기 위해 애쓰던 내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면서 “마음 편안히 다녀 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이번 입단 테스트 요청이 처음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면서 “캠프에서 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성은 ‘토론토에서 이적 제의가 들어오면 받아들일지는가’란 질문에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남일은 부상 회복에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 7월7일~29일 동남아 4개국에서 열릴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베어백 감독은 따라서 미드필더진에 예비명단 중 한 명을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 15일 발표한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 중 미드필더는 김남일과 김정우(나고야), 김두현, 손대호, 김상식(이상 성남), 이호(제니트) 등 여섯 명이다.

예비명단에는 백지훈(수원)과 오장은(울산)이 있다. 둘 중 한 명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남일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자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김남일이 짧은 피가 많이 수혈된 아시안컵 대표팀에서 팀의 중심적 역할을 해내야 하고 그라운드에서 리더 노릇을 할 적임자란 점에서 베어백

감독의 고민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김남일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본선에도 와일드카드로 뽑혔지만 부상으로 돌아온 데 이어 메이저대회 부상 불운을 곱집게 됐다.

베어백 감독은 전략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원 구축을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이 빠진 자리에는 현실적으로 이호와 김상식, 김정우, 오장은, 백지훈이 모두 투입될 수 있다.

베어백 감독은 지난 2일 네덜란드전처럼 강팀을 상대할 때 김남일과 이호를 나란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웠다. 흔히 ‘더블 볼란테’라고 불리는 전술이다.

반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는 첫 상대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바레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중원 삼각 편대를 구성할 때 공격형 미드필더 두 명을 세우고 수비형을 한 명만 놓는 역삼각형 포진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전임 덕 아드보카트 감독도 종종 구사했던 전략이다. 이럴 경우 김두현과 김정우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이호가 수비형을 맡는 방안이 베어백 감독의 1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험을 중시할 경우엔 소속팀 성남에서 풀골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아온 김상식에게 김남일의 대타 역할을 맡기고 김두현, 김정우, 손대호와 예비멤버 백지

훈, 오장은까지 다양한 옵션을 구사할 수 있다.

박지성이 빠지면서 대표팀의 중원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기도 김남일의 공백은 베어백 감독에게 ‘2차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베어백 감독의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변화다.

## U-17 청소년축구대표팀 자신감·공격력 보완해야

오는 8, 9일 국내 8개 도시에서 열릴 2007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청소년(U-17)월드컵을 앞두고 8개국 초청대회를 통해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는 17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이 브라질에 이어 아이티까지 2경기를 치렀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재연하겠다는 ‘박경훈 사단’은 16일 브라질전에서 0-2로 완패했고, 18일 아이티와 2차전에서는 2-0 완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 2경기에서 향후 2개월 동안 집중 보완해야 할 약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이름값에 주눅이 든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 브라질과 개막전에서 선수들은 이상하리만큼 자기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격려 오찬에서 대선배인 이영표(토트넘)가 “상대의 이름값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던 당부가 괜한 것이 아니었다.

공격력도 문제로 떠올랐다.

최종 패스 및 크로스의 정확성 결여와 문전 불처리 미숙 등으로 득점에 빈번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문성 위원은 “마무리가 상당히 약하다. 역습을 시도하거나 빠른 패스를 통해 골문 근처까지 전진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골로 연결이 안된다. 결정력이 아쉽다”고 했다.



굽이굽이 돌고돌아...은륜의 행렬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일원에서 열린 ‘스위스 사이클 투어’ 3차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아름다운 숲길을 자랑하는 바이베르 브루그 인근 도로를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대회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07 Wimbleton 테니스대회가 25일 영국 런던 근교 Wimbleton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1877년 남자 단식 우승자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130년 역사를 맞는 Wimbleton은 역사와 총상금에서 호주오픈, 프랑스 오픈, US오픈 등 3개 메이저대회를 능가

## 윌블던테니스 25일 개막...우승상금 13억

한다. 총상금은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약 207억원(1천128만2천710파운드)으로 올해부터는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을 똑같이 배정, 12억8천500만원(70만 파운드)씩을

준다. 4대 메이저대회 중 잔디코트에서 열리는 유일한 대회로 감서브와 서브 앤 발리, 파워를 앞세운 선수들이 영광을 누리 왔다. 역대 남자 우승자 중 보리스 베커(독

일·3회), 스테판 에드베리(스웨덴·2회)가 대표적인 ‘잔디 코트 전문가’였다.

한편 한국의 간판 이형택(48위·삼성증권)은 6번째 출전에서 첫 3회전 진출을 노린다. 그는 2002년과 2005~2006년 2회전에 올랐었고 지난해에는 호주의 감자 레이튼 휴이트(19위)와 2회전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아깝게 패했다.



20일(수)

- ▲메이저리그<미네소타-뉴욕M>(08:00·Xports), <휴스턴-LA에인절스>(10:55·Xports)
- ▲전국대학배구 하계대회 준결승(12:50·SBS스포츠)
- ▲MBC ESPN 단오 대축제 월드 걸즈 씨름대회(14:00·MBC ESPN)
- ▲제46회 체급별남녀유도(14:10·KBS 1)
- ▲대통령기 고교농구 남고부 결승(16:00·SBS스포츠)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롯데>(17:50·SBS스포츠)
- ▲프로야구<삼성-LG>(18:00·KBSN Sports), <KIA-한화>(18:30·MBC ESPN)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은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어보" 사랑해요!

# "엄마" 사랑해요!

##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SENSTICK